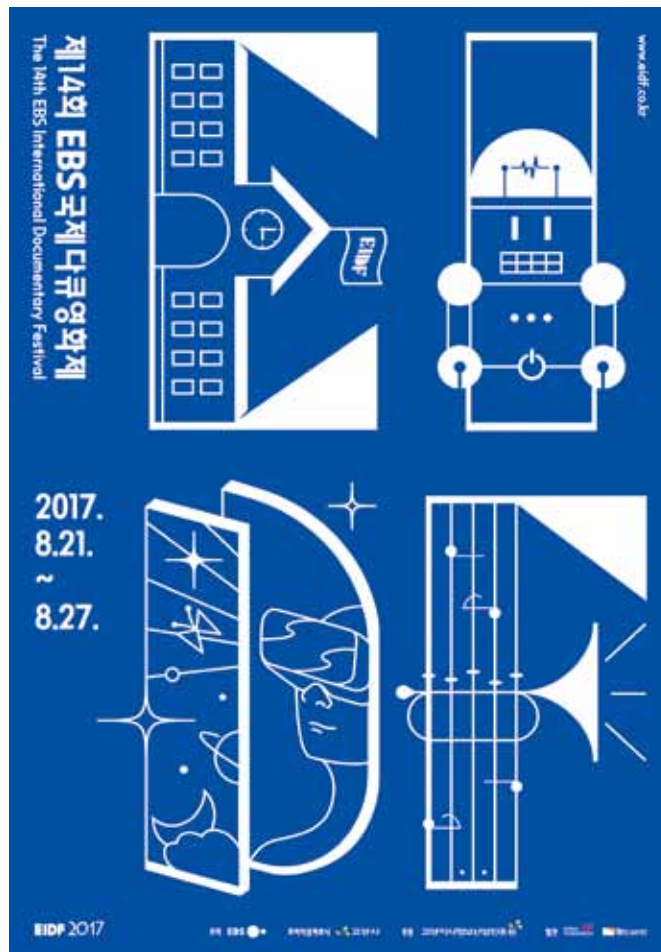


제14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2017), 8월 21일 개최

다큐로 보는 세상, Plugging into the world

EBS가 주관하는 제14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www.eidf.co.kr)가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열린다. EBS 국제다큐영화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큐멘터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국내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출범한 영화제다. TV, D-BOX(온라인/모바일 VOD) 등 세계 유일의 방송/매체 중심 영화제라는 점이 특징으로, 작년에는 30개국 53편 작품을 방송, 상영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로 VOD 서비스했다. 올해도 전 세계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EBS1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메가박스 킨텍스, 아트하우스 모모 1/2관을 비롯해 올해 완성되는 EBS 디지털통합사옥 등에서 상영되며, D-BOX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관람할 수 있다.

올해 EIDF 2017은 '다큐로 보는 세상(Plugging into the world)'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사회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날카롭고 경이로운 영상미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회의 단면을 분석하고 묘사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삶의 이면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스티벌 초이스(경쟁)부문 출품작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 작품 중 선정되며, 출품작 시상은 국내외 다큐멘터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예심 및 본심을 거쳐 대상(상금 10,000USD), 다큐멘터리 정신상(상금 7,000USD), 심사위원 특별상(상금 5,000USD), 시청자·관객상(상금 3,000USD)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개막식은 8월 21일 EBS 디지털통합사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종범 EBS 사장을 비롯해 EIDF 2017 심사위원장과 국내외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부문 감독 무대 인사, 심사위원 및 개막작 소개가 이어지고, 시상식은 마지막 날인 27일 열리며, EIDF 2017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KBS·MBC를 국민 품으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식 개최

지난 7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식이 개최되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공정한 언론으로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올바른 공영방송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KBS 및 MBC의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행동을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서 그 뜻을 함께 하는데 의의와 사명을 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213개 시민단체의 참여로 발족했으며, 발족식에는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 김연국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애칭은 ‘돌마고’(돌아오라 마봉춘·고봉순)로 선정되었고,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집행된다. 홈페이지(change-kbsmbc.com)를 통해서 시민행동의 의의와 일정, 돌마고의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칼럼니스트 황교익 등 시민행동 멘토단도 운영되며, 활동 계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으로 병행 추진된다. 공영방송의 정상화 이유를 설명한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과 팟캐스트, 인터넷언론,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해 제작 콘텐츠를 전파하며, KBS·MBC 노동자들의 내부 투쟁 상황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주 ‘돌마고 불금 파티’를 KBS와 MBC 앞에서 번갈아가며 진행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며, 집회와 토크콘서트, 1인 시위, 전국 순회 문화제 등 현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론을 만들고, 이로써 공영방송 정상화의 밑바탕을 만들 예정이다.

발족식에서는 각 참여 단체 대표의 발언과 동영상을 통한 현상이 공유되었고, 발족선언문 낭독과 활동 계획이 발표되어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 내의 투쟁 상황을 설명했다



각 참여 단체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